하이닉스, 1분기 '깜짝실적'… 차세대 HBM 양산 속도낸다

〈고대역폭메모리〉

매출 144% ↑… 영업이익 2.9조
청주공장 낸드 플래시 설비 증설
연내 HBM3E 12단 개발 계획

SK하이닉스는 24일 열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충북 청주시에 건설할 신규 팹(Fab·공장) M15X를 D램 생산기지로 결정하고 팹 건설에 5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비 투자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SK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는 M15X에 총 20조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해 생산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뉴시스

SK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성공한 가운데, 거침없는 공격 경영으로 실적 굳히기에 들어간다.

SK하이닉스는 청주에 낸드 플래시 생산기지 증설해 D램 생산기지로 바꾸고 폭주하는 HBM 수요에 본격 대응한다. 신제품 HBM3E 12단 생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25일 연결기준 매출 12조 4296억원, 영업이익 2조 886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4.3% 늘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보다 더 커졌다. 순이익은 1조 9170억원에 달한다. 이번 호실적은 D램 평균판매가격(ASP)이 전기보다 20% 이상 상승하고 낸드 ASP는 30% 이상 오르는 등 메모리 가격 상승이 호실적으로 이어졌다. 낸드는 프리미엄 제품인 기업용 eSSD 판매 비중 확대로 가격이 오르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SK하이닉스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도 진행한다.

SK하이닉스는 전날 이사회에서는 청주 M15X 공장을 D램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SK하이닉스는 20조 원을 투입해 충북 청주시 낸드플래시 생산기지에 D램 공장을 증설한다. 본래 낸드플래시 공장을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인공지능(AI) 개발 열풍에 HBM D램 생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M15X 공장은 낸드플래시 공장으로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마친 상태다. 공장 건립 후 장비를 들이면 바로 D램 생산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양산 시점은 내년 11월로 전망 된다. 11월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장비를 증설해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건설(5조3000억원)과 장비 구입 등에 모두 20조원을 책정했다.

M15X의 D램 생산 전환기지로의 전환은 내년 하반기 호실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차세대 HBM(고대역폭메모리)인 HBM3E 12단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 추정에 따르면 내년 중반기 이후 HBM3E 12단 수요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올해 고객이 원하는 HBM3E 제품은 주로 8단"이라며 "HBM3E 12단 제품은 고객 요청 일정에 맞춰 올해 3분기 개발을 완료 후 고객 인증을 거친 다음 내년 수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척도를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HBM3와 비슷한 수준의 수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원가 측면에서도 빠른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공급 과잉 직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낙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HBM 시장은 여전히 AI 서비스 고객사 확대와 유즈케이스 증가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급격한 성장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품 경쟁력과 대규모 양산 경험을 기반으로 상당수 기존 고객 잠재고객들과 함께 2025년 이후까지 장기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이동석(왼쪽부터)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준 HKASA 현대기아협력회 회장이 25일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그룹 kia360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차·기아, 협력사 상생 '앞장'
현장 근로여건 개선 120억 투입

고용노동부와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공동 어린이집 신설 등 복지사업 시행

현대·기아차와 1차 협력사가 2,3차 하청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에 120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25일 서울 강남구 기아360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소협력사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원·하청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간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 중심 지원을 넘어,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뒀다.

미래차 전환과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기아차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또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어린이집을 최초로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 대상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하는 한편,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협력회는 2,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기아차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한 제도 개선,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생산성 향상 컨설팅과 기술유출 보안 관리,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 등 2,3차 협력사를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